
01. 자신을 자유롭게 소개해 주세요.

저는 컴퓨터공학과에 지원할 때 Front end와 back end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VR과 AR과 같은 특정 기술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웹 개발과 서버 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에 입학할 당시 아는 것은 코딩과 관련한 c언어, java의 존재 정도였습니다. 운영체제, 알고리즘, 자료구조 등 전혀 알지 못했고, 1, 2학년 때는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많이 고민하고 헤매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3학년 소프트웨어 공학 수업을 듣게 되었고, 팀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팀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하루 한 번 감정을 표출하는 간단한 일기 작성 웹 서비스였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통해 back end와 front end가 어떻게 나뉘는지 알 수 있었고, 저의 진로를 Front end 개발자로 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02. 학교 수업이나 대외활동 등을 통해 경험한 프로젝트를 적어주세요. 프로젝트에서 맡았던 역할과 활용한 기술 및 개발 방식,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이를 극복한 방법 등도 함께 설명해주세요

대학교 3학년 때 수강한 소프트웨어 공학 수업에서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진행한 프로젝트 이름은 '감정 일기 플랫폼 - 팔레트'였습니다. '팔레트'는 웹 서비스로 사용자가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을 간단하게 한 줄 또는 글로써 표현하는 일기 웹 서비스입니다. 일기에는 글뿐만 아니라 감정에 해당하는 스티커와 음악,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된 감정 스티커를 통계 내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당시 DB와 back end 보조와 웹 디자인 일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back end와 front end가 어떤 역할로 나뉘는지 알 수 있었고 그 둘의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DB를 구성할 때는 oracle SQL을 사용했는데 oracle Cloud와 DB가 연동해서 서버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back end를 구성할 때는 PHP와 java script를 사용했습니다. 그전까지는 c언어, python, java 등의 언어만 사용하다가 처음으로 PHP를 사용했는데 생소한 언어여서 back end 담당자의 도움이 있었고 학기 초에 따로 공부하여 진행했습니다. 웹 개발 부분에서 팀원 모두 처음 해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java script와 HTML을 제대로 응용하기 어려웠고 또한 하고 싶은 디자인을 구현하기 힘들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방법을 생각하고 찾은 것이 Bootstrap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첫 프로젝트 개발이었지만 약 몇 주 이내에 웹 디자인을 팀이 원하는 구현 방식으로 개발을 끝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충분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웹 개발에 대해서 front, back end에 대한 지식, DB와 서버를 연동하는 방식 등 얻어가는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웹 디자인 관련해서는 간단히 Bootstrap 도구를 사용해서 개발하자고 팀원들에게 설명했고, 팀원분들이 동의해서 개발을 기간 내에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